

# 唐 皇帝의 詩歌 創作과 그 詩歌史적 의의

崔宇錫<sup>\*</sup>

## <목 차>

1. 서언
2. 당 황제의 시가 내용의 분류와 특색
3. 당 황제 시가 창작의 시가사적 의의
4. 결어

## 1. 서언

중국의 시가 장르가 현실의 정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은, 중국의 시가 전통 가운데 하나의 큰 특색일 것이다. 孔子는 일찍이 “시 삼 백편을 다 외우더라도 정무를 맡겨 주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방에 사신으로 나가서 전권을 가지고 혼자 응대하지 못한다면, 비록 많은 시를 외웠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sup>1)</sup>라고 언급하며, 시 공부가 현실 정치에서 훌륭히 응용되어야 함을 강조 했다. 뿐만 아니라 先秦 시기 이래로 시를 통해 정치의 득실을 가늠하고자 했으며, 위정자는 시를 통해 아래 사람을 감화 시키고자 했던 이른바 ‘詩教’의 전통은 매우 뿌리 깊은 것이었다. 다만 비록 위정자가 정치 행위에 있어서 시의 효능을 중요시 여겼을지라도, 제왕의 신분으로서 시가 창작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建安의 曹操(155-220)에 이르러야 가능했었다. 물

\* 우송대학교 글로벌듀얼디그리학부 중국학전공 조교수.

1) 《詩經·子路》: “誦詩三百, 授之以政, 不達, 使於四方, 不能專對. 雖多, 亦奚以爲”

론 漢初의 劉邦(BC256-BC195)이 <大風歌>를 창작했고 漢武帝(BC156-BC87)가 <秋風辭> 등을 창작한 바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시가 창작 활동에 참여하여 시인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은 역시 建安시기에 이르러서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조는 아들 曹丕(187-226), 曹植(192-232) 등과 더불어 이른바 ‘鄴下’의 문인 집단을 이끌며 建安文風을 개척하는 등, 제왕의 신분으로 본격적으로 시가창작에 열중하는 하나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이후 南朝의 梁代에 이르러 蕭衍(464-549), 蕭綱(503-551), 蕭繹(508-554)父子 역시 君臣 간에 빈번한 酬唱 활동을 벌이는 등, 시가 창작에 열중하며 南朝의 詩壇 형성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전통은 唐代(618-907)에 이르러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당대의 약 300년 기간 동안 재임했던 황제 22명 가운데, 시가를 창작하여 후세에 詩作을 남기고 있는 황제는 11명으로 절반의 비율(50%)을 보여 주고 있다. 게다가 당대 황제 가운데 恭宗 李重茂(695-714)는 재위 기간이 수개월 밖에 되지 않고, 穆宗 李恒(795-824)은 재위 기간이 3년, 敬宗 李湛(809-826)은 2년밖에 되지 않으며, 마지막 황제인 哀帝 李柷(892-908)은 13세의 어린 나이에 황제에 올라 단지 약 3년 동안밖에 황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등, 약 8명의 황제가 시가 창작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양상은 매우 주목할 만 한 사실이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당대 황제의 시가 창작 양상을 고찰하여, 먼저 그들의 시가 창작은 내용상에서 어떠한 특색이 있는지를 살펴본 뒤, 후세 평자들의 평가를 중심으로 그들의 시가 창작의 예술적 수준을 가늠하고자 한다. 아울러 그들이 고대 정치의 최고 정점인 황제의 신분이었다는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그들의 문학 활동이 唐詩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찰하여, 결과적으로 당시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 2. 당 황제 시가 내용의 분류와 특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대 황제 가운데 11명은 《全唐詩》나 《全唐詩外篇》 등을 통해 시가 창작을 후세에 남기고 있다. 먼저 가장 많은 詩作을 남긴 황제는 태종으로 91題 108首를 남기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당현종이 65題 66首를, 당덕종은 20首를, 측천무후는 <唐享吳天樂>, <唐明堂樂章> 등의 6題 37章의 樂章을 제외한 9首의 시작을 남기고 있다. 중종, 문종, 선종은 모두 7수 이상의 시작을 남기고 있으며, 예종은 단 1首,昭宗은 殘句 1수만을 남기고 있다. 이들의 시작을 그 제재별로 분류를 해 보면 다음의 도표<sup>2)</sup>와 같다.

作家	在位 期間	題材 分類							小計
		述懷 言 志	咏物 寫景	宴遊 節令	贈答 送別	邊塞 戰爭	其他	殘句	
太宗	24	34	47	6	7	6	4	4	108
高宗	34	2	2	5			1		10
中宗	6	1	1	4			1		7
睿宗	3	1							1
武則天	22	4	2	1	2		37		46
玄宗	47	20	6	11	19	2	7	1	66
肅宗	7	3					1		4
德宗	25			17	1			2	20
文宗	13	3		2	1		1		7
宣宗	13	4	2	1			2		9
昭宗	14							2	2
小計		72	60	47	30	8	54	9	280

www.kci.go.kr

2) 본 도표의 통계는 陳貽焮主編 《增訂注釋全唐詩》(北京: 文化藝術出版社, 2001年)에 수록된 詩作에 근거하였음을 밝혀둔다.

## (1) 述懷言志詩의 특색

위의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당 황제의 詩作 가운데 가장 많은 약 72首의 창작량을 보이는 것은 바로 술회언지의 내용이다. 이 부류의 시가 내용은 황제의 신분에서 느낄 수 있는 감회나 혹은 제왕으로서의 사명감내지는 치세에 대한 의지나 뜻을 드러내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당태종은 <還陝述懷>에서 “탄식하며 장검 어루만지니, 세상 구함에 어찌 명성을 좇으랴(慨然撫長劍, 濟世豈邀名)”라고 하거나, 당현종이 <過晉陽宮>에서 “길게 치세의 날을 품다가, 탄식하며 정원 한 구석을 밟노라. 험난함을 어찌 잊으랴, 나아가려 해도 진실로 머뭇거리네(長懷經綸日, 嘆息履庭隅. 艱難安可忘, 欲去良踟躕)”라며 제왕으로서의 포부를 述懷한 것이나, 당문종이 <暮春喜雨詩>에서 “교외의 들녘은 이미 충분히 축축해 졌으니, 기장은 풍년을 기약하네. 제후들은 함께 편안히 즐기니, 만방에서 화락함을 기대하리(郊垌既沾足, 黍稷有豐期. 百辟同康樂, 萬方佇雍熙)”라며 비가 온 뒤 풍년을 기대하는 제왕의 마음을 드러낸 것은 모두 그 좋은 예이다.

다만 주의 할 점은, 당 황제의 詩作 가운데 이 부류의 내용들이 후세의 평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 좋은 예로 당태종의 <帝京篇> 其十을 살펴보자.

以茲遊觀極	여기에서 끝까지 다 보며 놀다가
悠然獨長想	유연히 홀로 오랫동안 생각에 젖네
披卷覽前蹤	책을 펼쳐 선현의 자취를 살펴보고
撫躬尋既往	자신을 어루만지며 이미 지나간 것을 찾아보네
望古茅茨約	옛날의 띠, 갈대 지붕의 검약함을 바라보고
瞻今蘭殿廣	지금의 난화 궁전의 넓음을 보네
人道惡高危	사람 사는 도리에 높고 위태로운 것 싫어하니
虛心戒盈蕩	마음을 비우고 제멋대로 노는 것을 경계할지라
奉天竭誠敬	하늘을 받들어 정성껏 공경을 다하고
臨民思惠養	백성을 대하여 은혜롭게 보살필 생각을 하네
納善察忠諫	선한 것을 받아들이고 충성스런 간언을 살피니

明科慎刑賞 법조를 밝혀 형벌과 상을 신중히 하리라  
 六五誠難繼<sup>3)</sup> 육왕과 오제는 진실로 어렵게 계승하였고  
 四三非易仰<sup>4)</sup> 네 왕과 세 왕도 쉽게 우리러 보지 말지라  
 廣待淳化敷 널리 순박한 교화를 펼치어  
 方嗣云亭響<sup>5)</sup> 바야흐로 운운산과 정정산의 울림을 이어받으리

이것은 총 10首 가운데 마지막 한 수이다. 시의 서문에서는 “실한 내용을 놓아 버리고 겉의 화려함만을 추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방종케 하며 大道를 어지럽히니 군자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그리하여 <帝京篇>을 지어 ‘雅志’를 밝힌다”<sup>6)</sup>라며 시의 창작 동기를 밝히고 있다. 시의 첫 수부터 웅장한 궁전을 묘사하고, 이어서 독서의 경험, 군대의 검열, 악무의 감상, 연회의 즐거움 등 황제의 생활을 드러낸 뒤 위의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위 시에서는 황제로서 갖추어야 할 검약의 덕목과 방탕한 생활을 경계하는 마음가짐을 드러내는 가운데, 백성을 생각하며 忠諫과 형벌의 경중을 잘 살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제경편>에 대해, 明代의 周珽은 《唐詩選脉會通評林》에서 “<제경> 시편은 雅正한 도를 잃지 않았다”<sup>7)</sup>라고 평가했으며, 明代 胡應麟(1551-1602)은 《詩藪》에서 “당초에는 오로지 문황제(당태종)의 <제경편>만이 수식이 풍부한 정수이기에 가장 걸작이다. 梁代와 陳代의 것을 볼 때 神韻이 조금 부족하지만 넉넉히 아름다운 것은 그보다 더하다”<sup>8)</sup>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3) 六五: ‘六王’과 ‘五王’을 가리키는데, ‘六王’은 “夏禹, 商湯, 周武王, 周成王, 周穆王”을 가리키며, ‘五王’은 “黃帝, 顓頊, 帝嚳, 帝堯, 帝舜”을 가리킨다. 《左傳·昭公四年》과 《史記·五帝本紀》에 각각 보임.  
 4) 四三: ‘四王’과 ‘三王’을 가리키는데, ‘四王’은 “夏禹, 商湯, 周文王, 周武王”을 가리키며, ‘三王’은 “夏禹, 商湯, 周文王”을 가리킨다. 《左傳·成公二年》과 《孟子·告子下》에 각각 보임.  
 5) 云亭: 泰山 부근의 云云山과 亭亭山을 가리키며, 고대 황제가 태산에서 封禪을 행할 때 주로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다.  
 6) 唐太宗 <帝京篇·序>: “釋實求華, 以人從欲, 亂於大道, 君子恥之. 故述<帝京篇>以明雅志云爾.”(《全唐詩》卷1)  
 7) 《唐詩選脉會通評林》: “周珽曰, 帝京篇什不失雅道.”(陳伯海主編, 《唐詩彙評》,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1996年, 3쪽)  
 8) 胡應麟, 《詩藪》: “唐初惟文皇帝京篇, 藻瞻精華, 最爲傑作, 視梁陳神韻少減, 而富麗過之.”(《唐詩彙評》, 3쪽)

이밖에, 武功慶善宮을 지나며 제왕의 雄志를 드러낸 태종의 <過舊宅二首>에 대해서 宋代 陳岩肖(생졸년미상, 1147년 전후에 활약)의 《庚溪詩話》에서는 “시어의 氣勢가 雄偉하니, 진실로 인구에 회자되는 바가 된다. … 무릇 그 시어와 뛰어난 공적은 진실로 서로 부합한다”<sup>9)</sup>라는 평을 받았으며, 현재 단지 7수만을 남기고 있는 당중종의 시가 가운데 유일하게 “품은 정이 무한하며, 얼마이고 구속된 괴로운 심정을 곡진하게 묘사했다”라는 호평을 받은 <宮中題> 역시 述懷의 범주에 속하고 있다. 이밖에도 “楊慎이 神品으로 나열한”<sup>10)</sup> 무척친의 <如意娘>은 님을 그리며 여인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사실상 당 황제의 시가 가운데 후세의 호평을 받는 것은 술회언지의 내용들에서 비교적 집중적으로 보이고 있으니, 今人 高靑이 “태종의 시가 가운데 예술 성취가 가장 높은 것은 바로 그 우수한 詠懷詩작들이니 성당의 시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sup>11)</sup>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그러한 단면을 잘 지적하는 것이다.

## (2) 詠物寫景詩의 특색

황제의 신분에서 궁궐을 돌아보고 산천을 유람하며 보고 느낀 것을 시로 읊은 詠物詩와 寫景詩 역시 당 황제들이 비교적 애호했던 제재 가운데 하나이다. 景物을 묘사한 寫景詩로는 태종의 <望終南山>, <初夏>, <秋日即目>, 고종의 <五言過栖霞寺>, 중종의 <登驪山高頂寓目>, 현종의 <早度浦津關>, <野次喜雪>, <途經華岳>, 선종의 <百丈山> 등이 있다. 특히 詠物詩는 주로 거의 태종에게서만 보이고 있는데, 태종은 <琵琶>, <詠風>, <詠雪>, <賦得櫻桃>, <賦簾> 등 무려 약 23수의 영물시를 남기고 있다. 주의할 점

9) 陳岩肖, 《庚溪詩話》: “辭氣雄偉, 固人所膾炙. … 蓋其詩語與功烈真相副也.”(《唐詩彙評》, 4쪽)

10) 周珽, 《唐詩選詠會通評林》: “楊慎列爲神品.”(《唐詩彙評》, 9쪽)

11) 高靑, <論唐太宗李世民的詩歌>: “太宗詩歌中藝術成就最高的正是那些優秀的詠懷詩, 對盛唐的詩人們產生了很多的影響.”(《山西大學學報》, 1996年 第4期, 83쪽)

은, 태종의 영물시에 대해서 후세의 평자들은 그리 좋은 평가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明代의 王世貞(1526-1590)이 “당문황은 손으로 중원을 평정하고 일세를 뒤덮었지만, 시어에는 특히 장부의 기개가 없었으니, 습관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sup>12)</sup>라고 언급한 것은 주로 南朝의 내용은 없고 주로 화려한 수식만을 능사로 삼는 宮體詩風의 창작 경향을 그대로 답습한 태종의 영물시와 같은 작품을 비판한 것임은 학계의 중론이다. 다만 태종의 영물시 가운데 복숭아꽃을 묘사한 <詠桃>는 明末 清初의 王夫之(1619-1692)로부터 “절세의 명창”<sup>13)</sup>이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고, 여인을 버드나무로 비유한 <賦得臨池柳>, 가을 매미를 묘사한 <賦得弱柳鳴秋蟬> 등 몇 수의 영물시는 후세의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산에 올라 산사를 찾거나 강을 건너 행궁을 찾는 도중, 산과 강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을 시로 표현한 寫景詩의 경우에는 시의 곳곳에서 황제의 기세가 충만한 경우가 많다. 그 예로 현종의 <早度浦津關>을 살펴보자.

鐘鼓嚴更曙	시각 알리는 종소리 북소리에 새벽은 밝아지니
山河野望通	들녘 바라보매 산과 강 흰히 보이는구나
鳴鑿下蒲坂	말고삐 방울 울려 포진의 제방에 내리니
飛旆入秦中	깃발은 날려 관중 땅으로 들어가네
地險關逾壯	지세가 험하니 관새는 더욱 굳세고
天平鎮尙雄	하늘 평평하니 진영은 용감함을 떠받드네
春來津樹合	봄이 오니 포구의 나무는 서로 합쳐지고
月落戍樓空	달이 지니 병영의 누각은 텅 비네
馬色分朝景	말 빛깔은 아침의 풍경 나누고
鷄聲逐曉風	닭소리는 새벽바람을 따르네
所希常道泰	영원한 도 너럭하기를 바라노니
非復候繻同	관새 출입증 검사 기다리는 것 같은 일은 다시없기를

12) 王世貞, 《藝苑卮言》: “唐文皇手定中原, 籠蓋一世, 而詩語殊無丈夫氣, 習使之也.”(《唐詩彙評》, 1쪽)

13) 王夫之, 《唐詩評選》: “絕代高唱”(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76年, 81쪽)

이것은 현종이 開元 11년(723) 봄에 并州에서 長安으로 돌아오는 길에 浦津關을 지나며 지은 것이다. 포진관은 현재 山西省 永濟縣의 서쪽과 陝西省 大荔縣의 동쪽 경계에 있으며 黃河 강의 西岸에 위치한다. 시는 첫 구부터 새벽의 풍경을 설정한 뒤, 험한 포진관의 지세와 봄 풍경과 더불어 닭소리 우는 새벽의 정경을 매우 자연스럽게 묘사해 나가고 있다. 특히 처음 4구는 그 묘사가 웅혼하고 기백이 넘쳐 후세의 평자로부터 황제의 기상으로 높이 평가 받는다. 宋代 朱熹(1130-1200)는 《朱子語類輯略》은 “당명황(현종)은 영웅적 호매함의 자질을 갖추었으니, 단지 그가 지은 시를 보면 어떤 기백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지금 《唐百家詩》에 가장 먼저 명황의 <早度浦津關> 시 한 수를 게재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표일한 기개인가, 바로 제왕의 불꽃같은 기세가 있는 것이다”<sup>14)</sup>라고 평가한 것은 바로 그 좋은 예이다. 또한 明代의 施重光은 《唐詩近體》에서 이 시에 대해 “전 시가 웅장한 가운데 또한 지극히 맑고 곱다. 시 가운데에서 새벽의 정경을 묘사하였는데 그러서 조각해 넣은 흔적이 없다”<sup>15)</sup>라고 극찬 한 바 있다. 이밖에 태종의 <望終南山>, 고종의 <五言過栖岩寺>, 중종의 <登驪山高頂寓目>, 선종의 <百丈山> 등의 시작에서도 제왕의 기세를 느낄 수 있는 경물의 묘사가 확연히 드러나 있다.

### (3) 宴遊節令詩의 특색

황제의 신분으로 신하들과 더불어 황실의 크고 작은 경사를 축하하거나, 封禪을 하거나 혹은 명절을 쇠는 가운데 각종 연회를 베풀며 君臣이 함께 시를 창작하고 唱和하는 宴遊詩와 명절이 되었을 때 개인적으로 그 감회를 풀어낸 節令詩<sup>16)</sup>는 당 황제 시가의 또 다른 중요 제재이다. 사실 당대에 이르러 황제

14) 朱熹, 《朱子語類輯略》: “唐明皇資稟英邁, 只看他做詩出來, 是什麻氣魄。今《唐百家詩》, 首載明皇一篇<早度浦津關>, 多少飄逸氣概, 便有帝王底氣焰。”(《唐詩彙評》, 7쪽)

15) 施重光, 《唐詩近體》: “全詩雄壯中又極清妍, 中寫曉景, 無刻畫痕”(《唐詩彙評》, 7쪽)

16) ‘節令詩’의 제재는 上巳節, 重陽節, 守歲와 같은 명절에 연회를 베풀며 군신이 더불어 창작

를 중심으로 개최된 각종 연음의 활동은 매우 빈번했다. 이에 관련된 다음의 대목을 보자.

唐代 제왕의 燕飲 활동 개최 숫자는 兩漢보다도 더욱 많았다. 漢代 제왕은 모두 24명에 재위 기간은 388년으로 연음의 총 수는 약 80여 차례인데 반해, 당대 제왕은 모두 21명에 재위 기간은 289년으로 연음의 총 수는 대략 580여 차례이다. 당대 제왕의 연음 활동의 총 수는 한대에 비해 거의 499차례나 많으니, 이렇듯 빈번한 연음 활동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樂舞와 宴飲詩가 새롭게 발전 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 주었다.<sup>17)</sup>

당 황제의 시가 창작 가운데 연유의 내용이 중요한 한 제재를 차지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 할 것은, 궁중의 각종 宴飲 가운데 창작된 연유시는 上巳節, 重陽節, 端午節, 七夕과 같은 민속 명절 때에 황제의 주관으로 개최된 宴飲의 장소에서 창작된 연유시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태종의 <於太原召侍臣賜宴守歲>, 고종의 <七夕宴懸圃二首>, 현종의 <端午三殿宴群臣探得神字>, <仲秋節宴>, 덕종의 <重陽節賜宴曲江亭賦六韻詩用清字>, <中和節賜君臣宴賦七韻>, 선종의 <重陽賜宴君臣> 등이 모두 그 좋은 예이다. 이 가운데 가장 호평을 받는 덕종의 <重陽節賜宴曲江亭賦六韻詩用清字>를 살펴보자.

早衣對庭燎	아침 옷 입고 궁궐의 햇불 마주하노니
躬化勤意誠	백성 교화엔 부지런하고 뜻은 정성스럽네
時此萬機暇	온갖 정무 일 돌보다 이 여유 시간 되었고
適與佳節并	좋은 명절을 함께 만났네
曲池潔寒流	깨끗한 곡강 연못물은 차갑게 흐르코

하는 '宴遊詩'와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節令' 때가 되었을 때 연회의 자리가 아닌 곳에서 개인적으로 그 감회를 읊은 시만을 '절령시'로 구분하고자 한다.

17) 韓雲娃, <唐代帝王的宴飲活動推動樂舞和宴飲詩的創新與發展>: "唐代帝王宴飲活動舉辦的次數大大高於兩漢, 漢代帝王共有24位, 在位時間388年, 宴飲總次數大約80餘次, 唐代帝王共有21位, 在位時間289年, 宴飲總次數大約580餘次, 唐代帝王的宴飲活動的總體次數比漢代多近499次, 這樣頻繁的宴飲活動, 從不同程度上, 為樂舞與宴飲詩的創新發展提供了施展的平臺"(《首都師範大學學報》, 2009年增刊, 33쪽)

芳菊舒金英	국화 꽃은 향기를 흠날리네
乾坤爽氣滿	하늘과 땅엔 상쾌한 기운 가득하고
臺殿秋光清	누대와 궁전엔 가을 빛 맑네
朝野慶年豐	조정과 민간에서는 풍년을 경축하고
高會多歡聲	성대한 연회에선 기쁜 소리 많다네
永懷無荒戒	황폐한 정치 말라는 경계 영원히 간직할지니
良士同情	어진 선비와 이 정을 함께 하노라

이것은 덕종이 貞元4年(788) 9월 重陽節에 李泌, 劉太眞, 鮑防, 李紆 등의 대신들과 함께 창화하며 지은 것이다. 시의 序文에서 “짐의 재위 기간이 단지 10년이 되어 갈 뿐인데, 실로 충성스럽고 현량한 좌우의 보좌에 기대어 능히 작은 평안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三令節(음력 2월1일의 中和節, 3월3일의 上巳節, 9월9일의 重陽節을 통칭함)을 골라 이 연회를 베풀어 대부, 경사로 하여금 즐거움을 함께 누리하고자 한다”<sup>18)</sup>라는 연음의 목적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시는 먼저 연회 배경을 설정 한 뒤 연회의 즐거움과 풍년의 기쁨을 유감 없이 서술하고 끝으로 善政에 대한 경계를 잊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온화한 시어를 구사하며 기승전결의 구성에 매우 충실한 느낌을 갖게 한다. 王夫之가 “온화하고 주밀하며 아정함에 가깝다. 진실로 마땅히 魏明帝, 宋孝武帝와 함께 나란히 견줄 수 있다”<sup>19)</sup>라고 호평한 것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한편 上巳節, 重陽節, 端午節 등과 같은 명절을 지내며 보고 느낀 情景이나 感懷를 시로 읊은 節令詩로는, 태종의 <月晦>, <守歲>, 고종의 <九月九日>, <守歲>, 현종의 <端午>, <初入秦川路逢寒食>, 덕종의 <九日絕句>, 문종의 <上元日二首>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부류의 시들은 대부분 節令의 변화에 따른 경물의 묘사와 더불어 풍년 내지는 태평을 기원하는 頌美 정신을 드러내거나 혹은 명절의 즐거움을 화려한 풍격 속에서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이 가운데 후세의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는 현종의 <初入秦川路

18) 《全唐詩》卷4: “朕在位僅將十載, 實賴忠賢左右, 克致小康. 是以擇三令節, 錫茲宴賞, 俾大夫卿士得同歡洽也”(北京: 中華書局, 1996年, 44쪽)

19) 王夫之, 《唐詩評選》: “溫密近雅, 固當與魏明帝宋孝武帝并駕”(74쪽)

逢寒食 > 을 살펴보자.

洛陽芳樹映天津	낙양의 향기 나는 나무는 천진교에 비치고
灞岸垂楊窳地新	파수가에 드리운 버들은 땅을 스치며 새롭게 자라네
... ..	
可憐寒食與清明	아름다운 한식 청명절이어
光輝并在長安道	장안의 길에서도 함께 빛나는도다
自從關路入秦川	관문 길을 따라서 진천에 들어가니
爭道何人不戲鞭	길을 다뒤편하며 폭죽놀이 하지 않는 이 없네
公子途中妨蹴鞠	어린자제는 길 가운데서 축구를 방해하고
佳人馬上廢秋千	아름다운 아가씨는 말 위에서나 그네 놀이 멈추네
渭水長橋今欲渡	위수의 긴 다리를 오늘 건너려는데
葱葱漸見新豐樹	점차 새로 자라는 울창한 나무 보이네
遠看驪岫入雲霄	멀리 여산이 하늘가로 들어가는 것 바라보니
預想湯池起烟霧	예상컨대 온천 연못엔 안개가 피어오르리
烟霧氛氳水殿開	안개 자욱한 곳에선 아름다운 유람선 띄우고
暫拂香輪歸去來	잠시 향기로운 수레 끝다가 돌아가리라
今歲清明行已晚	올해의 청명절 행차 이미 다 끝나려하니
明年寒食更相陪	내년의 한식에 다시 모시리라

시는 총 7언 20구의 古詩이다. 전편에 걸쳐 한식날의 즐거운 정경을 화락한 분위기 속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특히 詩語가 맑고 자연스러워 독자로 하여금 한식날의 청명함을 느끼게 해준다. 왕부지는 이 시에 대해서 “하나의 기세로 맑고 온화하다”<sup>20)</sup>라고 호평 한 바 있다.

(4) 기타

당 황제의 시가 내용에는 앞서 살펴본 몇 가지 제재 외에도, 신하에게 下賜를 하거나 왕족, 신하, 도사, 법사 등과의 교류 등에서 주고받은 贈答詩, 신하

20) 王夫之, 《唐詩評選》: “一氣清和”(8쪽)

등을 멀리 타지로 떠나보내며 지은 送別詩, 과거의 역사 인물을 추모하거나 혹은 그에 대한 감회를 슬회하는 詠史詩, 신하 등의 죽음을 애도하는 哀弔詩, 변세의 풍광을 묘사하는 가운데 建功을 기리는 邊塞戰爭詩 등과 주로 태평성대를 '歌功頌德'하는 측천무후의 <唐享吳天樂>, <唐明堂樂章> 등의 6題 37章의 樂章등이 더 포함되어 있다.

먼저 증답시의 제재를 살펴보면, 황제의 신분에서 臣下 혹은 當代의 저명한 道士의 덕을 頌美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태종의 <賜蕭瑀>, <賜房玄齡>, <賜魏徵詩>, <賜李百藥>, 則天武의 <贈胡天師>, 현종의 <賜道士鄭紫陽>, <答司馬承禎上劍鏡> 등이 바로 그 좋은 예이다. 이별의 순간에 석별의 정 혹은 상대에 대한 흠모의 뜻을 드러내는 송별시 역시 그 상대가 신하 혹은 法師나 道士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태종의 <餞中書侍郎來濟>, 현종의 <送忠州太守康昭遠等>, <送李邕之任滑臺>, <送趙法師還蜀因名山奠簡>, <送道士薛季李昌還山>, 덕종의 <送徐州張建封還鎮>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역사 속의 인물을 노래하는 詠史詩에서는, 중종의 <幸秦始皇陵>처럼 前代 역사 속의 황제를 노래하거나, 혹은 현종의 <過王濬墓>처럼 功績을 크게 세운 인물을 숭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흥미로운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증답시나 송별시에서도 '道士'와 관련 된 작품이 다수 있듯이 영사시 속에서도 현종의 <過老子廟>, <經河上公廟>처럼 道家의 鼻祖나 仙人을 노래하는 작품이 보인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高祖이래로 도가를 숭상했던 唐 皇家의 전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은 자명하다. 當代 유명인사의 죽음에 대해 극진한 애도의 뜻을 드러낸 것으로는 태종의 <送魏徵靈座>, 현종의 <送賀知章歸四明>, 선종의 <弔白居易> 등의 3수가 있다.

이밖에, 태종과 현종에게서 주로 보이는 변세전쟁시로는 태종의 <飲馬長城窟行>, <執契靜三邊>, <經破薛舉戰地>, <傷遼東戰亡>, 현종의 <平胡>, <旋師喜捷> 등의 작품이 있으며, 그 내용은 주로 전공을 찬미하거나 혹은 변세의 이색적인 풍광을 묘사하는 가운데 治世의 뜻을 드러내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시 속에서는 종종 황제의 높은 기상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태종의 <經破薛舉戰地>를 살펴보자.

昔年懷壯氣	옛날에 호매한 기상 품고
提戈初仗節	창을 메고 처음으로 황제의 출정 부절 받들었었네
心隨朗日高	마음은 높게 걸린 맑은 해를 따랐고
志與秋霜潔	뜻은 가을 서리와 같이 깨끗했다네
移鋒驚電起	칼끝을 옮기며 놀란 번개 일으켰고
轉戰長河決	싸움을 바꿔가며 긴 강을 터뜨렸었네
營碎落星沈	진영이 깨지니 별은 떨어져 잠겼으며
陣卷橫雲裂	진지는 말려 구름 가로지르며 찢어졌네
一揮氛沴靜	한번 휘두르니 흉악한 기운 잠잠해졌고
再舉鯨鯢滅	다시 들고 일어서니 탐욕스런 고래는 줄어들었네
于茲俯舊原	이곳에서 옛 들판을 굽어보고
屬目駐華軒	화려한 수레 멈춰 주시는 하네
沈沙無故迹	모래에 빠져 옛 자취는 사라졌으나
減窟有殘痕	적 속이기 위해 아궁이 수 줄였던 흔적은 남아있네
浪霞穿水淨	물결 노을은 물을 뚫으며 맑고
峰霧抱蓮昏	봉우리의 안개는 연꽃 감싸며 희미하네
世途亟流易	세상길은 빠르게 바뀌고
人事殊今昔	세상사는 예나 지금이 다르다네
長想眺前蹤	길게 생각하며 옛 자취 바라보고
撫躬聊自適	스스로를 돌아보며 애오라지 유유자적하노라

이 시가 언제 창작되었는지 확실한 고증은 없지만, 隋代 末年에 자칭 '西秦霸王'을 자처하며 隴西(현재의 甘肅省 定西縣 일대) 지역을 장악했던 薛舉(?-618)를 태종이 義寧元年(617)에 군대를 이끌고 가서 대파했던 일을, 황제가 된 후에 그 전쟁터를 다시 지나면서 회고해 지은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곳곳에서 젊은 시절의 드높았던 기세와 가볍게 적을 제압했던 탁월한 용맹함을 드러내는 가운데, 세월의 무상함 속에서도 잃지 않는 자신만만함을 한껏 뽐내고 있다. 《歷代詩發》에서 이 시에 대해 “영명하고 과감한 기세가 행간에 넘친다. 鍾伯敬(鍾惺, 1574-1625)이 태종의 시는 결국 陳, 隋代의 꼭 막힌 울림을 가

지고 있어 그것을 읽다보면 사람을 시원히 뚫어주지 못한다고 했는데, 다 통달한 말은 아닌 것 같다”<sup>21)</sup>라고 언급한 바와 같다.

### 3. 당 황제 시가 창작의 시가사적 의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 황제의 시가 창작은 결코 적지 않은 창작량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또한 그 제재에 있어서도 비교적 다양한 면모를 보여 주고 있었다. 특히 태종과 현종의 경우에는 唐代의 어느 시인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창작량을 보여 주고 있었다. 다만 후세의 평가를 중심으로 당 황제의 시가 창작 예술의 수준을 가늠해보면, 唐代의 일류급 시인들의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먼저 후세의 각종 주요 ‘選集’ 혹은 ‘選評集’을 고찰해 보면, 唐代의 시선집인 殷璠(생졸년미상, 753년 전후 활약)의 《河岳英靈集》, 高仲武(생졸년미상, 779년 전후 활약)의 《中興間氣集》, 특히 初唐부터 唐末五代까지의 1800여 시인을 망라한 韋縠(생졸년미상, 910년 전후 활약)의 《才調集》 등의 이른바 “唐人選唐詩”에서는 당 황제의 시가를 단 한편도 수록하지 않고 있다.<sup>22)</sup> 다만 宋代에 이르러서는 王安石(1021-1086)의 《唐百家詩》의 맨 앞에 현종의 <早度蒲津關> 1首를 수록하고 있으며, 元代의 楊士弘(생졸년미상, 1344년 전후에 활약)의 《唐音》에서도 마찬가지로 <早度蒲津關> 시 한편만을 수록하고 있다. 명대에 이르러서는 그 수록된 시가 조금 늘어나 唐汝詢(생졸년미상, 1624년 전후에 활약)의 《唐詩解》 같은 경우에는 문종의 <宮中題>, 현종의 <早度蒲津關>, <幸蜀西至劍門> 등 총 3首를 수록하고 있다. 清代에

21) 《歷代詩發》：“英毅之氣，勃勃行楮間。鍾伯敬謂太宗詩終帶陳隋滯響，讀之不能暢人，似非通論也。”(《唐詩彙評》，4쪽)

22) 當代 황제의 시가 작품을 신하의 입장에서 選別해 評價 한다는 것은 ‘大不敬’의 죄를 범하는 것이 작동했음은 미루어 추측 할 수 있다.

이르러 이러한 상황은 큰 진전을 보여주게 되어, 沈德潛(1673-1769)의 《唐詩別裁集》에서는 현종의 <經魯祭孔子而歎之>, <送賀知章>, <幸蜀西至劍門>, <早度蒲津關>, <早登太行山中言志>, <南出雀鼠谷答張說>, <左丞相說右丞相璟太子少傅乾曜同日上官命宴東堂賜詩>, <春晚宴兩相及禮官麗正殿學士探得風字>와 문종의 <宮中題> 등의 9首 수록하고 있고, 王夫之의 《唐詩評選》의 경우에는 태종의 <秋日效庾信體>, <賦得浮橋>, <月晦>, <詠雨>, <詠桃>, 현종의 <初入秦川路逢寒食>, <幸蜀西至劍門>, <同劉晃喜雨>, 덕종의 <重陽節賜宴曲江亭賦六韻詩用清字> 등 더욱 다양한 시인들의 詩作 9首를 수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후세 평자들의 평가를 중심으로 당 황제 시가의 수준을 가늠해 보면, 그 평가의 내용은 주로 태종과 현종 두 황제의 작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발적으로 선종과 덕종의 일부 시편에 대한 평가가 눈에 띄는 뿐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이들에 대한 호평은 시가 창작의 구조적, 심미적 측면 등의 예술성 대한 호평보다는 주로 그 시에 내포된 웅대하고 드높은 황제로서의 '氣象'에 대한 호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태종의 <過舊宅二首>에 대해서 《庚溪詩話》에서 "시어의 氣勢가 雄偉하다(辭氣雄偉)"라고 한 것이나, <經破薛舉戰地>에 대해 《歷代詩發》에서 "영명하고 과감한 기세가 행간에 넘친다(英毅之氣, 勃勃行楮間)"라고 한 것이나, 현종의 <早度蒲津關>에 대해서 朱熹가 "얼마나 큰 표일한 기개인가, 바로 제왕의 불꽃같은 기세가 있는 것이다(多少飄逸氣概, 有帝王底氣焰)"라고 평 한 것은 모두 그 좋은 예이다. 또한 현종의 <幸蜀西至劍門>에 대해 清代의 邢昉(1590-1653)은 《唐風定》에서는 "전아하게 아름다우며 웅혼하게 가지런하니, 氣象이 일세를 뒤 덮었다"<sup>23)</sup>라는 극찬을 했으며, 선종의 <百丈山>에 대해 南宋 趙與峕(생졸년미상, 대략 1231년 전후에 활약)의 《娛書當詩話》에서는 "단지 이 산을 위해 절창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제왕의 견식과 기운을 이를 통해 볼 수 있다"<sup>24)</sup>라고 언급한 것은 모두 좋은 예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

23) 邢昉, 《唐風定》: "高華雄整, 氣象籠蓋一代"(《唐詩彙評》, 6쪽)

이 드높은 기상을 드러낸 시가 작품은 漢高祖, 曹操 등의 뒤를 이어 중국 詩歌史에 이른바 제왕의 '陽剛'문학의 전통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 고전 시가 내용은 《楚辭》이래로 신화된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낼 경우에는 주로 이른바 '美人', 香草의 비유를 통해 '陰柔 여성'의 입장을 견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와 같은 작품 속에서는 거리낄 것 없이 드높은 기세를 한껏 드러낸 제왕의 기상은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에 반해 당 황제의 시가 속에서는 제왕만이 누릴 수 있는 '唯我獨尊' 식의 雄壯한 '양강' 기세가 곳곳에 드러나 있다.<sup>25)</sup> 흥미로운 것은, 嚴羽(1197?-1253?)는 "당대인들과 송대인들의 시는 공교롭고 졸렬함을 논하기도 전에, 그 氣象부터가 다르다"<sup>26)</sup> 라고 한 바 있는데, 여기서 말한 당시 큰 특징인 '기상'은 바로 당 황제 시가의 특성이기도 하니, 아마도 당시의 '기상'은 당 황제의 시가 창작에서 일정 부분 영향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당 황제의 詩作 가운데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이 적지 않으나 나름대로의 예술성을 구현 했을 지라도, 이를 다시 일류급 당대 시인들의 작품들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당 황제의 시가 창작의 시가사적 의의는 그 시가 자체의 예술성 보다는, 오히려 황제의 신분으로서 시가 창작을 했던 그 행위 자체, 혹은 문학의 審美觀을 드러내어 못 시인들에게 시가 창작의 방향을 제시했던 점, 혹은 시단의 조력자로서 시가 창작에 영향을 끼쳤던 점 등에서 더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는 듯하다. 특히 당 황제 가운데 태종, 현종, 덕종의 경우는 시가 창작 및 문학 사상 등에서 唐詩의 형성과 발전에 끼친 영향이 매우 현저하기에, 그 시가사적 의의를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4) 趙與峽, 《娛書當詩話》: "不獨爲此山絕唱, 帝王意度, 於此可見"(常振國編, 《歷代詩話論作家》, 臺北: 黎明文化事業公司, 1993年, 172쪽)

25) 帝王文學의 '陽剛' 특성에 관해서는, 陳功偉의 <試論中國帝王文學>(《廣東行政學院學報》, 2003年4月) 87-88쪽 참조.

26) 嚴羽, 《滄浪詩話·詩評》: "唐人與本朝人詩, 未論工拙, 直是氣象不同."(臺北: 里仁書局, 1987年, 144쪽)

## (1) 당태종의 시가 창작과 唐詩의 형성

당 태종이 唐詩의 형성과 발전에 공헌한 점은, 문학 사상의 측면과 시가 창작 방면에서 모두 엿 볼 수 있다. 먼저 문학 사상 측면을 살펴보면, 태종의 이른바 ‘雅正’ 혹은 ‘中和’의 문학관<sup>27)</sup>은 당초의 시단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태종의 ‘아정’ 문학관은 그의 <帝京篇> 序文을 통해 그 일면을 살필 수 있다.

내가 政務에서 한가로울 때, 文藝에서 노닐고 휴식을 했다. ... 모두 ‘中和’로 알맞게 하고, 淫放에는 매이지 않았다. ... 실한 내용을 놓아 버리고 곁의 화려함만을 추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방종케 하며, 大道를 어지럽히니, 군자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그리하여 <제경편>을 지어 ‘雅志’를 밝힌다.<sup>28)</sup>

여기서 말한 “大道”는 儒家의 道를 가리키는 것이며, 추구하고자 하는 ‘雅志’는 모두 ‘中和’로 알맞게 하고, 淫放에는 매이지 않는다(皆節之於中和, 不係之於淫放)<sup>29)</sup>라는 구체적인 유가의 문학관에 부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윗사람이 어떤 일을 좋아하면 아래사람 가운데 반드시 그 일을 더 심하게 좋아하는 이가 있게 된다”<sup>29)</sup>라는 말이 있다. 사실상 이러한 開國 황제의 문학관은 唐初 詩壇의 내용과 형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먼저 내용면에서 보면, 당초의 시단은 南朝의 형식주의 문학이 추구하는 ‘綺麗’의 장점을 어느 정도 취하는 가운데 유가가 추구하는 ‘詩教’의 정신과 함께 ‘중화’의 심미를 함께 체현하려 했다. 실제로 “《全唐詩》에 수록된 당태종 및 그의 문신들의 시가를 보면, 절대 대부분의 작품이 ‘雅樂’으로 칭해지는 궁정시이며, 綺麗한 궁체시는 극히 적은 것”<sup>30)</sup>은 그러한 단면을 보여 주는 일례라 하겠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27) 태종의 ‘雅正’ 문학관에 관해서는, 陳順智, <論唐太宗的雅正文學觀及其對貞觀詩壇的影響>(《武漢大學學報》, 1999年 4期) 71-73쪽 참조.

28) 唐太宗 <帝京篇·序>: “予以萬幾之暇, 游息藝文, …… 皆節之於中和, 不係之於淫放. …… 釋實求華, 以人從欲, 亂於大道, 君子恥之. 故述<帝京篇>以明雅志云爾.”(《全唐詩》 卷1, 1쪽)

29) 《孟子·滕文公上》: “上有好者, 下必有甚焉者矣.”

이른바 ‘文質彬彬’의 시학 관념은 唐詩가 남조의 유미주의 시풍에서 벗어나 ‘文’과 ‘質’이 조화롭게 함께 발전할 수 있게 한 매우 중요한 토양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다.

태종의 ‘아정’ 혹은 ‘중화’의 심미관은 당시의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것은 바로 당대의 ‘律詩’가 그러한 아정 심미관에서 크게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아정’의 심미관을 구현했던 율시<sup>31)</sup>는 아정의 문학관을 추구했던 태종 영향 하의 시단에서 장족의 발전을 했던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태종 스스로도 當時로서는 가장 많은 90수의 新體詩를 창작하였고, 또한 이 가운데 <帝京篇>其一, <秋日二首>其二, <月晦>, <三層閣上置音聲> 등 17수가 粘對의 규칙에 부합하여 당시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인 18%의 粘對律 부합을 보여주기도 했다.<sup>32)</sup> 물론 이러한 창작 경향은 태종 바로 뒤에 등장한 심전기(656?-716?)와 송지문(656?-712)이 율시의 체제를 완성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하게 했음은 자명하다.

한편 실제 시가 창작 면에서도 태종은 당시의 번성에 매우 큰 작용을 했다. 먼저 태종 스스로가 창작한 시가의 수량을 보자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殘句를 제외한 완전한 시가 작품을 약 104수를 남기고 있는데, 이와 같은 창작량은 當時의 다른 시인들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수량이다. 예를 들어 初唐의 魏徵(580-643)의 詩作은 대부분이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된 樂章이며 다른 제재의 시가는 단지 4수에 불과하며, 褚亮(560-647)은 약 10首, 楊師道(?-647)는 약 20首, 許敬宗(592-672)은 약 27수, 虞世南(558-638)은 약 32수, 王績(590?-644)은 태종의 절반인 약 53수의 시작만을 남기고 있을 뿐이다. 황제 스스로 이렇게 많은 시작을 창작 했을 뿐 만 아니라, 태종은 君臣간의 연회의 장소에서도 시가 창작을 적극 장려 했으며, 또한 이는 初唐의 시학 이론이 크

30) 梁爾濤, <貞觀雅詩學觀析論>: “從《全唐詩》所收唐太宗及其文臣詩歌來看, 絕大部分作品都是被稱爲‘雅樂’的宮庭詩, 綺艷的宮體詩是極少的.”(《殷都學刊》, 2008年, 9月, 94쪽)

31) 율시가 추구했던 ‘雅正’ 심미관에 관해서는, 拙稿 <古代 四言詩와 唐代 律詩 속의 ‘雅正’審美觀>(《中國語文論叢》, 2004年 26輯), 158-164쪽 참조.

32) 이 통계를 杜曉勤, 《齊梁詩歌向盛唐詩歌的嬗變》(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1995年), 39-41쪽의 통계표를 인용하였음.

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은 아래의 언급을 통해 엿 볼 수 있다.

唐太宗 후기에 이르러서는 君臣간의 연회에서 酬唱하는 풍조가 성행하였는데 태종이 지은 일련의 격률화된 新詩는 종종 신하들로 하여금 화답하게 하였으니, 일순간에 奇巧와 聲韻에 관한 연구가 크게 흥성하게 되었던 것이다.”<sup>33)</sup>

실제로 貞觀 中, 後期 이후부터 율시는 성률이론이나 실제창작 면에서 장족의 발전을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sup>34)</sup>

이와 같이 태종은 문학 사상 측면에서나 혹은 실제 창작 방면 모두에서 唐代가 ‘시의 나라(詩國)’로 진입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이다. 清代의 《全唐詩》 編纂者들이 “唐代 삼백년 동안 風雅(시)가 흥성했으니, (태종)황제께서 실로 그것을 열어 젖혔던 것이다”<sup>35)</sup>라고 언급한 것이나, 今人 許永璋이 태종의 唐詩에 있어서의 詩史적 지위에 대해 “그 근원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대를 열어 젖혔으니, 그를 가리켜 唐詩의 아버지라 할 것이다”<sup>36)</sup>라고 극찬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의의를 잘 대변해주는 것이다.

## (2) 당현종과 盛唐詩의 번성

중국의 시가 역사상 ‘詩國’의 최고 봉우리로 일컬어지는 ‘盛唐(713-765)’은 현종의 재임기간 가운데 開元에서 天寶 연간까지의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

33) 喬惟德, 尙永亮著《唐代詩學》: “到了唐太宗後期, 君臣飲宴唱酬之風盛行, 太宗寫的一些律化新詩, 往往要求臣下酬和, 一時間對奇巧, 聲韻的講求蔚爲風氣.”(長沙: 湖南人民出版社, 2000, 92쪽)

34) 杜曉勤, <貞觀中後期新體詩聲律的長足發展>(《齊梁詩歌向盛唐詩歌的嬗變》,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1995年, 13-14쪽), 참조.

35) 《全唐詩》 1卷: “有唐三百年風雅之盛, 帝實有以啓之焉.”(1쪽)

36) 許炯編, 《許永璋唐詩論文選》: “既開其源, 又啓其盛, 謂之唐詩之父”(南京: 南京出版社, 1993年, 25쪽)

에는 李白(701-762), 杜甫(712-770), 王維(699?-759), 孟浩然(689-740) 등 대 시인이 줄줄이 출현하며 詩壇을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주의 할 것은 이러한 唐詩의 盛況에는 현종이라는 황제의 조력이 매우 요긴했다는 점이다. 현종이 성당시 발전에 끼친 공헌은 크게 보아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측면과 시가 창작 방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측면을 살펴보면, 현종은 당시가 크게 흥성 할 수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토양을 공고히 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현종은 28세의 나이에 제왕에 오른 이후, 사치를 경계하고 요역을 줄이는 한편 농업을 장려하고 형벌을 엄정히 하는 등 지속적인 정치, 경제의 안정화를 꾀했다. 그 결과 경제, 사회는 급속도로 안정화되어, “개원, 천보 연간 중에 농사짓는 자는 더욱 힘쓰고 천하에서 높은 산과 끊긴 골짜기에도 쟁기와 보습이 가득했다.”<sup>37)</sup> 이러한 연유로 고종 永徽3年(652) 때의 인구는 약 380만 戶口 수는 현종 천보13년(754) 때에 이르러서는 약 900만 호구 수를 넘게 되었다.<sup>38)</sup> 물론 이러한 사회, 경제적 안정은 시인들의 문학 창작에 좋은 토대를 마련해 주었음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현종은 문벌, 귀족 정치의 온상이었던 ‘九品中正制’에 개혁을 가하는 한편, 과거 시험을 강화하여 ‘寒門’ 출신의 인재들을 대거 등용하였다. 특히 과거 시험문제에 이른바 ‘風雅古調科’를 증설하는 등, “開元시대에 비로소 상시적으로 律詩로써 관리를 뽑게 되었다.”<sup>39)</sup>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詩文에 뛰어난 인재들이 대거 등용되는 결과를 낳았으니, 張說(667-730), 蘇頲(670-727), 張九齡(673-740) 등의 대 시인들이 모두 寒門 출신으로 宰相, 卿相의 반열에 올랐던 것이다.

현종이 유교를 중시하는 한편, 도교와 불교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친 점 역시 간과 할 수 없다. 현종은 유교의 경전을 과거 시험의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37) 元結, 《次山集》 卷7: “開元, 天寶之中, 耕者益力, 四海之內, 高山絕壑, 耒耜亦滿”

38) 본 통계는 黃鑫, <玄宗與盛唐文學> (《遼寧經濟管理幹部學院學報》, 第2008年 第1期) 127쪽에서 인용함.

39) 王運熙, 《漢魏六朝唐代文學論叢》: “開元時代始常以律詩取士”(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2年, 116쪽.)

지정했던 동시에, 스스로가 《道德經》, 《周易大衍論》, 《金剛般若經》 등에 註釋을 가했다. 또한 <經鄒魯祭孔子而嘆之>, <過老子廟>, <送道士薛季昌還山>, <送趙法師還蜀因名山奠簡> 등의 詩作을 창작하며 儒, 佛, 道에 대한 자유로운 사상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등, 儒, 佛, 道의 사상이 서로 배척 없이 유행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었다. 이백의 豪放한 시풍 속에 엿보이는 도가적 요소, 두보의 현실 참여 시작에서 드러나는 유가적 요소, 왕유의 시가 곳곳에서 발견되는 불가의 '空' 사상 등으로 인해 성당의 시적 성취가 최고 절정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토양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한편 현종은 시가 창작 방법에서도 성당의 시단에 큰 영향을 끼쳤다. 먼저 현종은 약 65首의 시가를 창작하여 태종의 뒤를 이어 당대 황제 가운데 두 번째 많은 창작량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내용면에서는 抒情, 言志, 贈答, 邊塞, 詠物, 詠史 등의 다양한 제재를 구사하며 당 황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시가 예술 성취를 보여 주고 있다. 청대에 편찬된 《唐詩三百首》에 현종의 시 <經魯祭孔子而歎之> 한 수만이 수록되어 있으며, 앞서 살펴본 심덕잠의 《당시별재집》에 문종의 시가 단지 1수 수록되었는데 반해 현종의 시가 8수 수록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앞서 살펴 본 현종의 <早度浦津關>이 “제왕의 불꽃같은 기세가 있다(有帝王底氣焰)”라는 평을 받고, 또 다른 시 <幸蜀西至劍門>에 대해 清代 沈德潛(1673-1769)은 “雄健하게 힘이 있으니, 盛唐 한 세대의 先聲을 열었다”<sup>40)</sup>라는 호평을 받는 등, ‘氣勢’ 혹은 ‘氣象’이 드높은 시가를 다수 창작한 점은 이른바 ‘氣象’으로 호평 받는 盛唐의 시단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현종의 시가 형식을 보자면, 그의 현존 시 65首의 형식은 五言律詩, 五言排律, 五言絶句, 五言古詩 등 다양한 형식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현종에게는 약 27首의 五言排律詩가 있어 역대 황제 가운데 가장 많은 오언배율시를 창작하였는데, 흥미로운 것은 성당 시기에 이르러 오언배율시가 매우 유행하

40) 沈德潛, 《唐詩別裁集》 卷9 “雄健有力, 開盛唐一代先聲”(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年), 288쪽)

었다는 것이다. 今人 葛曉音 선생은 “神龍연간부터 開元연간 전에 이르는 기간에 오언율시와 오언배율시가 시단의 주요 형식이 된 것은 하나의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 開元 초에는 오언배율시가 또한 오언율시보다 더욱 많아졌다”<sup>41)</sup> 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개원 연간에 오언배율의 시가 형식이 더욱 유행하게 된 것 역시 현종의 시가 창작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살펴보면, 현종은 성당의 시가 盛況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 할 수 있다. 明代 黃佐(1490-1566)가 《唐音類選》의 序文에서 “성당의 시는 현종을 중심으로, 張說과 蘇頲이 ‘燕許’로 불리며 관아에서 명성을 냈고, 이백과 두보는 대가의 이름으로 조정과 민간에서 명성을 떨쳤으며, 왕유, 맹호연, 高適(707-765), 岑參(715-770) 등은 그 다음으로 명성을 냈다”라고 언급한 것은, 성당 시단에서의 현종의 지위를 대변하는 듯하다.

### (3) 당덕종과 中唐 詩壇의 발전

덕종은 ‘安史之亂’ 이후의 당 황제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26년) 동안, 建中(780-783), 興元(784), 貞元(785-805) 등 세 개의 연호를 사용하며 재위했다. 덕종의 중당 시단에 끼친 영향 역시 개인적인 시가 창작 방면과 시단의 조력자 역할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덕종은 황제의 신분으로서 시가 창작에 매우 열정적이었던 점을 간과할 수 없다. 《全唐詩》의 ‘德宗小傳’에서 “문장을 잘 지었으며, 詩作에 더욱 뛰어 났다. 매번 학사들과 옥당전에서 시를 논했으며 한 밤중에도 잠들지 않았다”<sup>42)</sup>라고 언급했으며, 《唐詩紀事》의 <德宗篇>에서는 “황제의 만년에는 시구가 매우 공교하여 신하들이 미치지 못하였다”<sup>43)</sup>라고 언급한 것들은 모두 덕종의 그러한 면모를 잘 보여주는 것이

41) 葛曉音, 《詩國高潮與盛唐文化》<論開元詩壇>: “神龍至開元前期, 五言律詩和五言排律成爲詩壇的主要體裁, 是一個引人注意的現象, … 到開元初, 五排又更多於五律.”(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年)

42) 《全唐詩》卷1: “善屬文, 尤長於篇什. 每與學士言詩於浴堂殿, 夜分不寐.”(44쪽)

다. 특히 덕종은 이른바 ‘三令節’ 등의 명절 때에 연회를 베풀며 大臣, 學士들과 더불어 시가를 창작, 唱和하는 문학 활동에 매우 왕성한 정열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덕종은 貞元4年(788)년부터 貞元18年(802)까지 매우 빈번한 ‘宴會唱和’를 주재하였다. 앞서 살펴 본 덕종의 <重陽節賜宴曲江亭賦六韻詩用清字> 외에도, 잔구를 제외한 현존하는 18수의 詩作 가운데 <送徐州張建封還鎮> 1수만을 제외하고, <重陽節賜宴曲江亭賦六韻詩用清字>, <中和節賜君臣宴賦七韻>, <中和節宴百僚賜詩> 등 17수 거의 모두가 삼령절 등의 명절을 맞이해 연회를 베풀고 군신이 시가로써 창화하거나 그 감회를 술회하는 시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清代 趙翼(1727-1814)의 《廿二史札記》에 “덕종은 시가 창작을 좋아하였다. … 당의 여러 제왕들 중에 시가에 능한 자가 매우 많았다. 예를 들어 태종, 현종, 문종, 선종 등은 모두 (군신간의 창화하는)御製 시작을 후세에 남기고 있지만, 덕종이 더욱이 가장 많다”<sup>44)</sup>라는 언급이 보이는 것은 바로 덕종의 그러한 문학 활동을 잘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군신간의 창화 가운데 덕종의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는 權德輿(759-818), 戴叔倫(732-789) 등은 貞元의 詩壇을 주도하는 세력이었다는 점과 韋應物(737-792), 崔元翰(729-795), 盧綸(737?-799?) 등과 같은 중요시인들 역시 창화의 기회를 가졌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고려 해보면, 貞元 시단의 형성에 끼친 덕종의 영향은 매우 지대했음을 엿 볼 수 있다.

한편 덕종은 황제의 신분으로 과거제도를 통해 중당의 많은 시인들을 발탁했었던 점 역시 중당 시단 형성에 끼쳤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近人 陳寅恪은 “무릇 당대 과거제도의 흥성은, 고종시기에 비롯되었으며, 현종 시대에 완성되었고, 덕종 세대에서 극성하였다”<sup>45)</sup>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덕종은 과거 시험을 매우 중시하였다. 특히 덕종은 大歷14年(799) 5월에 즉위하자마자 그해의

43) 計有功, 《唐詩紀事》 卷2: “帝晚年工詩句, 臣下莫及.”(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年, 18쪽)

44) 王樹民, 《廿二史札記校證》: “德宗好爲詩. … 唐諸帝能詩者甚多, 如太宗, 玄宗, 文宗, 宣宗皆有御制流傳於後, 而尤以德宗爲最.”(北京: 中華書局, 1984年, 401쪽)

45) 陳寅恪, 《元白詩箋證稿》: “蓋唐代科舉之盛, 肇於高宗之時, 成於玄宗之代, 而極於德宗之世”(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8年, 2쪽)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등, 황제 스스로 과거 시험을 주관하며 시문이 뛰어난 인재를 대량으로 발탁하고 이를 중용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중당의 시단에 새로운 '中興'을 이룩해낸 '元和' 시단의 주요시인들, 예를 들어 崔元翰, 裴度(765-839), 韓愈(768-824), 柳宗元(773-819), 劉禹錫(772-842), 白居易(772-846), 元稹(779-831) 등은 모두 建中2년부터 貞元19년 사이에 과거 시험을 통해 발탁되었다는 점이다.

#### 4. 결어

曹操가 본격적인 시가 창작에 열중했던 까닭인지는 몰라도, 그의 아들, 손자인 曹丕, 曹叡가 제왕의 신분이며 동시에 시인의 반열에 이름을 올렸던 것처럼, 唐代의 개국 황제인 太宗이 본격적인 시가 창작에 심혈을 기울인 이래로, 당대의 허다한 황제들은 수많은 시작을 남기며 당시 번영에 한 몫을 차지했다. 특히 태종은 108수, 현종은 65수, 덕종은 20수 등의 詩作을 남겼으며, 중종, 문종, 선종 역시 7수 이상의 시작을 남기며 시가 창작에 열중하였다. 당 황제의 시가 내용을 분석해 보면, 述懷言志의 내용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후세의 평자들로 하여금 가장 많은 호평을 받았다. 詠物의 제재는 남조의 유풍을 답습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지만, 山川의 경물을 묘사하는 寫景의 경우에는 황제의 기세가 곳곳에 보이기도 하였다. 宴遊의 제재는 初唐 이래로 황제와 군신이 함께 창화 하는 전통 속에서 꾸준히 애호 받았으며, 특히 덕종에 이르러 크게 흥성하였다. 또한 이른바 三令節 및 中秋節, 端午 등의 명절을 쇠며 느끼는 감회를 풀어낸 節令詩 역시 역대 당 황제 시가의 주요한 제재였다. 이밖에 贈答詩, 邊塞詩, 詠史詩 등의 제재 역시 당황제의 시가 속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일부 詩作은 후세의 평자들로 하여금 줄곧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후세의 호평을 받은 작품은 일부 황제의 일부

작품에만 집중되어 있기에, 당 황제의 시가 창작의 전체적인 수준은 역시 唐代의 일류급 시인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비록 당 황제들의 시가 창작이 일류급의 수준에는 진입할 수 없었다고 할지라도, 황제의 신분으로 시가 창작에 매우 열중하고 신하들과 더불어 唱和를 즐겼던 그러한 정황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唐詩가 크게 흥성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토양을 조성한 것으로 여겨 질 수 있다. 특히 태종, 현종, 덕종의 경우에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심미적 방면 등에서 당시의 발전에 매우 깊숙이 간여하고 있었다. 태종은 정치를 안정시키고 문학의 흥성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雅正’의 심미관으로 初唐의 시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율시의 창작에도 술선수범하여 당대에 율시가 크게 흥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 현종은 수준 높은 시자를 적지 않게 창작하는 가운데, 과거 시험에 詩賦의 과목을 정례화 하여 문인들로 하여금 시가 창작에 더욱 큰 관심을 보이게 하였으며, 儒佛道의 사상을 모두 배척 없이 장려하여 성당의 詩歌로 하여금 더욱 다양한 내용과 사상을 내포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덕종은 ‘안사지란’ 이후의 침체된 시단에서 군신간의 창화를 크게 활성화시켜 중당의 시단을 몸소 이끌어 갔으며, 특히 과거시험을 통해 중당의 중요 시인들을 거의 모두 발탁하여 이들로 하여금 후일 ‘元和’ 시기에 크게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

결국 수많은 당 황제들은 실제의 시가 창작 면에서나 혹은 시단 형성의 조력자 역할 면에서 모두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하며 당시의 발전에 기여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태종은 당시 발전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현종은 성당의 절정을 이끌어내는 토양을 제공했으며, 덕종은 중당의 시단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며, 당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니, 唐詩 흥성의 원인을 연구함에 있어 당 황제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한 一環임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參考文獻〉

- 王夫之,《唐詩評選》,北京:文化藝術出版社,1976.
- 王運熙,《漢魏六朝唐代文學論叢》,上海:復旦大學出版社,2002.
- 胡可先,《中唐政治與文學》,合肥:安徽大學出版社,2000.
- 吳兢,《貞觀政要》,上海:上海古籍出版社,1978.
- 吳雲 校注,《唐太宗全集》,天津:天津古籍出版社,2004.
- 沈德潛,《唐詩別裁集》,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2.
- 計有功,《唐詩紀事》,上海:上海古籍出版社,1965.
- 孫琴安,《唐詩與政治》,上海:上海人民出版社,2003.
- 許炯編,《許永璋唐詩論文選》,南京:南京出版社,1993.
- 許總,《唐詩史》,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
- 常振國編,《歷代詩話論作家》,臺北:黎明文化事業公司,1993.
- 喬惟德,尚永亮著,《唐代詩學》,長沙:湖南人民出版社,2000.
- 彭定求,楊中訥等,《全唐詩》,北京:中華書局,1991.
- 陳伯海主編,《唐詩彙評》,杭州:浙江教育出版社,1996
- 陳貽焜主編,《增訂注釋全唐詩》,北京:文化藝術出版社,2001
- 葛曉音,《詩國高潮與盛唐文化》,北京:北京大學出版社,1998.
- 劉開揚,《唐詩通論》,成都:巴蜀書社,1998.
- 丁放,袁行霈,〈唐玄宗與盛唐詩壇——以其崇尚道家與道教為中心〉,《中國社會科學》,2005年7月.
- 田恩銘,〈唐德宗與貞元詩風〉,《哈爾濱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2011年,9月.
- 吉定,〈論唐帝王對唐詩繁榮的貢獻〉,《南京社會科學》,2004年,12月.
- 李曉青,〈論唐太宗的政治咏懷詩〉,《邢台學院學報》,2006年,3月.
- 吳在慶,〈論唐太宗與盛唐氣象〉,《河南科技大學學報》,2007年,2月.
- 高青,〈論唐太宗李世民的詩歌〉,《山西大學學報》,1996年 第4期.
- 袁鳳琴,〈唐德宗與大歷詩人〉,《銅陵學院學報》,2010年,4月
- 袁鳳琴,〈唐德宗與元和詩人〉,《巢湖學院學報》,2009年,7月.
- 陳順智,〈論唐太宗的雅正文學觀及其對貞觀詩壇的影響〉,《武漢大學學報》,1999年 4期.
- 黃鑫,〈玄宗與盛唐文學〉,《遼寧經濟管理幹部學院學報》,第2008年 第1期.
- 張振華,〈淺析唐玄宗與盛唐詩歌崛起之關係〉,《西北大學學報》,1985年,4月.
- 劉媛,〈唐代三令節考與皇家宴游詩〉,《重慶教育學院學報》,2008年,9月.

羅文革, <淺談唐玄宗對盛唐詩的影響>, 《邯鄲職業技術學院學報》, 2008年, 9月.  
梁爾濤, <貞觀雅詩學官析論>, 《殷都學刊》, 2008年, 9月.

### < 中文提要 >

本論文乃以考察唐皇帝之詩作內容及其在唐詩史上之地位加之唐皇帝予唐詩繁榮之貢獻爲主旨。究其唐皇帝中對唐詩繁榮貢獻最大者, 乃爲唐太宗, 唐玄宗, 唐德宗三家。其一, 以唐太宗而言, 其詩歌創作多達108首, 且其內容包含抒懷, 宴飲, 寫景, 邊塞, 贈答等多樣之面貌。最爲重要的是他一貫主張的所謂雅正之文學觀。此種文學觀對初唐律詩發展及其內容之影響深遠。其二, 唐玄宗乃爲唐皇帝中詩歌藝術之成就最高者。他的詩歌勝在氣勢雄偉。玄宗不但在政治, 社會, 文化方面上都積極鼓勵文人之詩歌創作, 而且採取儒家, 道家, 佛家三教共同發展之政策, 以提供盛唐詩歌發展之思想背景。其三, 安史之亂之后, 唐德宗大大鼓勵君臣之間之唱和, 并通過科舉選拔了許多中唐之重要詩人。故此, 考察唐皇帝詩歌創作乃爲了解唐詩繁榮原因不可忽視之一環。

關鍵詞: 唐皇帝、詩歌、唐太宗、唐玄宗、唐德宗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12. 31.	2013. 2. 4.	2013. 2. 19.	2013. 2. 21.	2013. 2. 28.